

전남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 방안 연구

A study for improving welfare of Artist in Jeonnam

김 광 욱

2019년
정책과제

| 차례 |

I. 서론	3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방법	6
II. 예술인 복지 지원정책 분석	11
1. ‘예술인’과 ‘예술인 복지’의 정의	11
2. 예술인 복지 관련 법규	15
3. 예술인 복지 관련 정부의 정책	18
4. 예술인 복지 정책에 관한 논의	20
III. 예술인 복지지원 사례분석	25
1. 국내 사례 분석 대상 선정	25
2. 부산시 : 예산과 인력의 확보를 통해 안정적 복지 지원	26
3. 전라북도 예술인복지증진센터 : 예술인의 사각지대 해소	28
IV. 2018 예술인 실태조사 전남 현황 분석	33
1. 2018예술인 실태조사 개요	33
2. 2018예술인 실태조사 전남 현황	35
3.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전남 예술인 수혜 현황	53
V. 전남 예술인 복지 증진 방안	57
1. 전남 예술인 복지 정책 기본 방향	57
VI. 결론	63
참고문헌	65

| 표 차 례 |

〈표 II-1〉 자치단체의 예술인복지 관련 조례	16
〈표 II-2〉 2015년과 2018년 실태조사의 전라남도 분야별 모집단 분포	18
〈표 II-3〉 자치단체의 예술인복지 관련 조례	19
〈표 IV-1〉 광역자치단체별 조사 모집단 분포	33
〈표 IV-2〉 2015년과 2018년 실태조사의 전라남도 분야별 표본 분포	34
〈표 IV-3〉 분야별 현재 활동 분야	35
〈표 IV-4〉 예술활동 경력	36
〈표 IV-5〉 예술작품 발표 횟수	36
〈표 IV-6〉 저작권 보유현황(분야별)	37
〈표 IV-7〉 외국에서 예술활동 현황(연령별)	37
〈표 IV-8〉 문화예술교육 활동 종사 현황(분야별)	38
〈표 IV-9〉 개인 창작공간 보유 여부	39
〈표 IV-10〉 개인 창작공간 소유 형태	39
〈표 IV-11〉 지난 1년간 예술인의 가구 총 수입	40
〈표 IV-12〉 분야별 예술인의 가구 총 수입	40
〈표 IV-13〉 개인 수입 중 예술활동 수입	41
〈표 IV-14〉 분야별 예술인의 예술활동 개인 수입	41
〈표 IV-15〉 지난 1년간 예술 관련(교수, 강사 등) 수입	42
〈표 IV-16〉 지난 1년간 비예술 수입	43
〈표 IV-17〉 지난 1년간 예술 학습 및 훈련 등의 지출	44
〈표 IV-18〉 전업예술인 고용형태(분야별)	45
〈표 IV-19〉 겸업예술인 고용형태-예술활동직업(분야별)	45
〈표 IV-20〉 겸업예술인 고용형태-비예술활동직업(분야별)	46
〈표 IV-21〉 예술활동 외 직업 종사 이유	46
〈표 IV-22〉 겸업 예술인 주 평균 예술활동 투입시간	47
〈표 IV-23〉 지난 1년간 예술활동 계약 체결 경험	48
〈표 IV-24〉 지난 1년간 정부/기업/개인 지원금 수혜 여부	49
〈표 IV-25〉 지난 1년간 정부/기업/개인 지원금 수혜 여부	49
〈표 IV-26〉 분야별 4대보험 미가입률	51
〈표 IV-27〉 예술 경력 단절 경험 여부	51

〈표 IV-28〉 예술 단체 가입 여부	52
〈표 IV-29〉 지역별 예술활동증명 현황	53
〈표 IV-30〉 지역별 예술활동증명 현황	54
〈표 IV-31〉 지역별 예술활동증명 현황	54

| 그림 차례 |

〈그림 I-1〉 연구 흐름도	7
〈그림 IV-1〉 4대보험 미가입률 비교	50

| 요약 |

- 예술인 복지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논의된 역사가 오래지 않음.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기본적 상황은 정책 시행초기라 전남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식하기에 무리가 있으며 전국적으로 비슷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함. 이러한 견지에서 전라남도 예술인 복지에 관한 논의를 통해 전남 예술인의 창작권리와 예술인으로서 존중받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음.
- 2018 예술인 실태조사에서 전남 거주 예술인들의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수치가 전국 평균 이하였으며, 특히 예술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매우 적고 20~30대 예술인의 진입이 어렵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었음. 또한 예술인 실태조사가 국가승인 통계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반이 갖추어진지 오래지 않아 2015년에 이은 두 번째 조사여서 모집단 추정과 표본 추출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음.
- 일부 지자체에서는 별도로 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북과 부산의 경우 예술인 복지 증진 센터를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을 보이고도 했음.
- 전남의 경우 2018년에 <전남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예술인 복지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었으나 실무적인 기반과 인프라, 그리고 도내 예술인들의 인지도 저하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그 결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에 지역 수혜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으며, 이러한 결과로 2018예술인실태조사에서 전남도의 모집단 자체가 축소된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함.
- 현재 별도의 연구과제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전남예술인 실태조사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아울러 예술인 복지 기본계획에 준하는 수준의 연구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됨.
- 무엇보다 예술인 복지 증진에 대한 철학이 정립되어야 함. 국가적 이슈가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법안이 마련되고 정책이 추진되는 것은 여론에 떠밀려 급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예술인의 복지가 무엇인지 왜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서 복지 증진에 힘써야 하는지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상황임.
-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과 예술인 창작 지원사업은 명확히 다른 사업임. 예술인 창작

지원사업이 창작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복지 증진 사업은 창작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술인이 우리 사회에서 창작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음.

- 그렇다면 창작 지원사업에서는 지원할 수 없었던 예술인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육성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관점에서 예술인으로서 갖는 어려움과 고민을 서로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창작활동을 위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도 혁신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한데, 기본적으로는 조례의 모호한 부분들을 명확히 하는 조례 개정,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예술인 복지 증진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 설립, 문화예술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타 사업과의 연계 등 전반적인 행정체계의 수정 보완이 필요함.
- 예술인 복지의 궁극적 목적은 예술인의 창작 활동 활성화에 있음. 이에 대한 도내의 관심과 인지도가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임. 그렇다고 처음부터 대대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하더라도 내실 있게 사업의 성과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함.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지역 전라남도에 거주하며 문화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전남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와 예술 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
 - 모든 방안의 바탕에는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존재로 예술인을 바라보고 정당히 존중을 받도록 하는데 있음.
- <예술인 복지법> 및 시행령에 따라 전라남도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할 의무가 있음.
 - 2011년에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동법 제4조의2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함.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2(실태조사)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분야 또는 사안 등을 대상으로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서는 문화예술인의 실태조사에 대한 범위를 정의하고 있음.

- <예술인 복지법>에는 실태조사에 따른 복지증진 계획 등을 정기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음. 동법 제4조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는 의무만 있음.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3 (실태조사의 범위 등)

- ① 삭제
- ②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한다. 다만, 법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수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성별, 나이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 취업상태 등 직업실태에 관한 사항
 4.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보험가입 실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하생략>

□ 지역별로 예술인 복지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으나 전남은 아직 미비한 실정임.

- 부산과 전북은 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예술인을 지원하고 있음.
- 충북에서는 예술인 의료비를 할인해 주거나 광주·경주·전남의 경우 예술인 실태조사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복지시책을 도출하고 있음.
- 전남의 지리적 특성상 예술인의 전수도 파악이 안되고 있는 실정임. 체계적인 접근이 어려운 만큼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시책은 최소한 전남예술인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나아가 취약한 예술인의 사회적 안정망 구축과 안정적인 예술 창작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2. 연구방법

□ 문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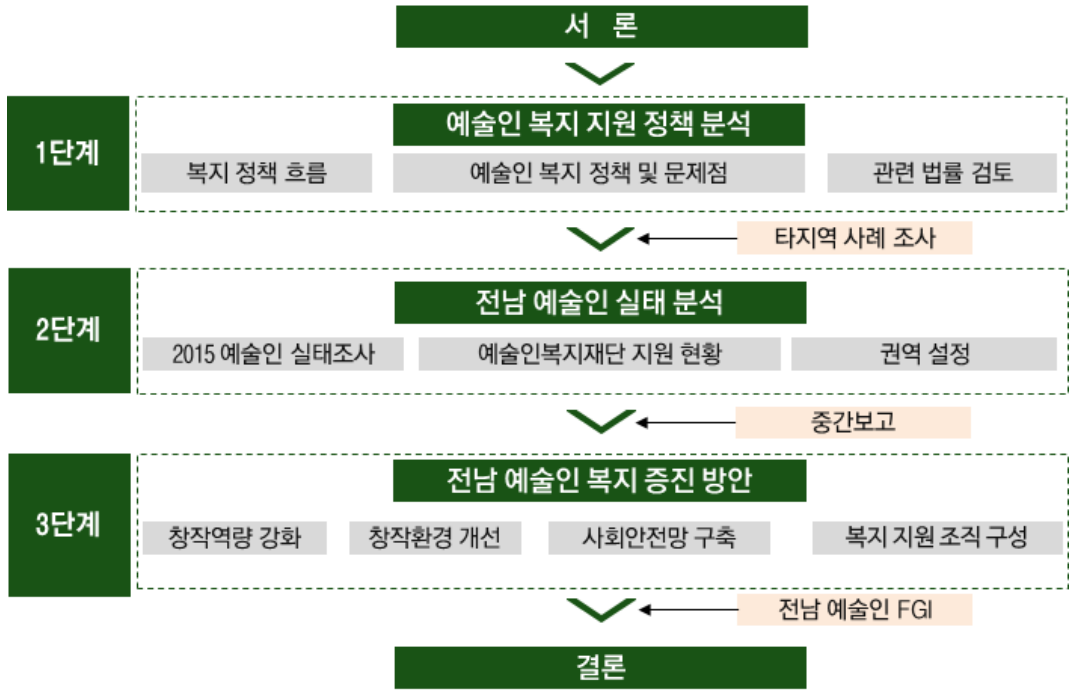
- 예술인 복지 증진과 관련된 법률
 - 예술인 복지법 (2019년 1월 17일 시행)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2018년 10월 18일 시행)
 -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2016년 5월 4일 시행)
 - 전라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2018년 2월 22일 제정)
- 예술인 복지 증진과 관련된 보고서
 - 정갑영(2003),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연구
 - 박영정(2008),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
 - 김휘정(2011), 예술인 복지 지원의 쟁점과 입법 및 정책과제
 - 이선엽(2012), 예술인 복지의 전망 : 경남 미술인이 기대하는 예술인 복지
 - 문화체육관광부(2017), 새정부 예술정책 토론회-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 타지역 예술인 실태조사 보고서
 - 부산예술인 실태조사(2015)
 - 광주 예술인 복지지원 정책보고서(2018)

□ 전남 문화예술인 및 예술인 복지재단 관계자 FGI

- 활동 예술인이 많은 4개 분야의 전남 예술인 집담회 개최
- 예술인 복지재단 관계자

□ 예술인 복지 사례조사

- 전북, 부산 등 예술인 복지 지원 센터 개설 지자체 사례 조사



〈그림 1-1〉 연구 흐름도

II

예술인 복지 지원정책 분석



II

예술인 복지 지원정책 분석

1. ‘예술인’과 ‘예술인 복지’의 정의

가. 예술인의 법적 정의

□ 〈예술인 복지법〉 상의 정의(예술인 복지법 제2조)

- 예술인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¹⁾
 - 동 조항에서 예술인의 예술활동을 보는 법의 관점은 예술활동을 통해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임. 즉, 예술인을 국가에 공헌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점임.
 - 그러나 다음에 정의하고 있는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음. 즉, 미술이면 전시활동, 음악이면 공연활동 등을 증명해야 하는 사람임.
 - 예술 활동을 증명하기 어려운 청년 예술인들은 예술인에 해당되기 어렵고, 각종 예술인 복지 지원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음. 예술인의 복지를 생각할 때 아직 안정적인 기반이 부족한 청년층을 제외했다는 점에서 〈예술인 복지법〉의 한계가 명확함.

1) 2009년 논의 당시 법무부에서는 국가가 예술인을 증명할 경우 헌법상 보장되는 예술의 자유를 해칠 우려가 있어 우려를 나타내었음.

□ 포괄적 관점에서 예술인의 정의

- 예술인을 포괄적 관점에서 정의를 내리면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고 있거나, 소정의 예술교육을 마치고 예술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자”로 정의를 내릴 수 있음.
 -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술인 복지법>상의 예술인을 포함하고, ‘예술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자’라는 점에서 청년층을 포함하는 것임.
 - 다만, ‘소정의 예술교육을 마치고’라는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예술교육 과정에 있는 ‘예비 예술인’이나 ‘생활 예술인’을 배제하여 <예술인 복지법>의 목적인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임.
- 또한 예술활동의 범위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12개의 문화예술 분야 이외의 직업군까지 포함하는 것도 가능함. 즉, 디자인, 공예 등 문화산업직군 뿐 아니라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지원 인력(기획, 행정 등)까지 포함이 가능함.

나. ‘예술인 복지’의 범위

□ <예술인 복지법> 상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예술인 복지법 제3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 ① 예술인은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 ② 모든 예술인은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 ③ 모든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예술 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 ④ 모든 예술인은 유형·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 <예술인 복지법>상의 예술인 복지는 위의 4개 항을 뜻함.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권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 등이 그것임. 이를 간단히 줄이자면 ‘정당한 존중을 받을 권리’로 축약할 수 있음.

-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들이 처한 현실에서 예술인들이 ‘정당한 존중을 받을 권리’를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함. 즉, 최근의 문화예술계에서 벌어진 ‘미투운동’ 등에서 보듯 개인 프리랜서나 계약직 등 비정규직이 많은 예술인의 직업특성상 인격 모독이나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어도 은폐·축소되고, 예술인 개인으로는 구제받기 어려운 현실임.
- 이에 따라 예술인의 권리에서 ‘존엄성 및 신체적·정신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법안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며,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보고 있는 것임.
-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정당한 존중을 받을 권리’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벌어지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건의 재발방지와 사회적 인식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별도로 추가했다는 점에서 법적 정의가 향후 여건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예술인 복지의 범위의 문제점

- 예술인 복지는 그 정의를 폭넓게 정의내리고 있어 모호하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지금은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고 있지만 예술인 중 취약계층이나 장애인층의 경우 이에 대해 별도의 정의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않으나 향후 여건에 따라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복지는 정책의 영역에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로 나눌 수 있음. 예술인 복지는 예술인이라는 특정 계층으로 한다는 점에서 선별적 복지로 볼 수 있으나 법 조항에서 ‘모든 예술인’으로 명시하고 있어 보편적 복지로 보는 것이 바람직함.
- 이는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모든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예술인의 계층이 다양하고 특히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을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는 사업도 발굴되어야 함.

□ 예술인복지의 정책적 의미

- 예술인은 문화예술을 창작하는 주체의 포괄하는 개념이고, 복지는 사회적 안전망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공급하는 개념임. 자칫 예술인에 대한 모든 지원이 복지가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예술인에 대한 특혜로 비춰질 수 있는 개념이 예술인복지의 개념임.

- 이러한 측면에서 예술인복지는 문화적 가치에 국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예술인복지는 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창작여건을 보장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간의 공감과 소통을 촉진시키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공동체를 강화하는 사회적 가치도 충분함.
- 결론적으로 예술인복지는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며 나아가 국가 공동체 형성에 무형의 기여를 한다고 할 수 있음.

2. 예술인 복지 관련 법규

가. <예술인 복지법> 이전의 법규

□ <대한민국예술원법>

-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거 설립된 대한민국예술원에서는 법령에 의하여 예술원 회원에 대해 매월 150만원의 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음.
- 2011년에는 법령의 개정으로 회원 정원을 100명으로 늘렸고 회원의 자격을 예술 경력 30년 이상인 자로 예술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로 정해져 있어 수혜 범위가 매우 제한적임.

□ <문화예술진흥법>

- <문화예술진흥법> 자체가 예술인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 아니라 국가의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한 법안이다 보니 문화예술을 공연하거나 전시할 수 있는 공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예술인 복지법>이 통과되기 전의 <문화예술진흥법>에 예술인 복지 관련 조항은 제 18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를 나열하면서 5항에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라고 서술된 것이 전부임.
- 2009년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가칭)예술인 공제회를 마련하자는 법안을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에 담는 것을 논의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제출되지 못했음.
- 당시 기획재정부의 반대 논리는 첫째, 정부 지원을 전제로한 공제회 설립이 불가하고, 둘째, 문화예술인의 범위가 불분명하기에 타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셋째 공제회는 원칙적으로 회원 부담으로 설립·운영할 사항이지 공적 재원을 매개로 해서는 안된다는 점이었음.

나. <예술인 복지법>

□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는 <예술인 복지법>

- 18개 항으로 구성된 예술인 복지법은 1장 총칙, 2장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3장, 사회보장, 4장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관한 조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예술인 복지를 위한 법률로 이후 다른 지자체의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모범이 되었음.
-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대중문화예술 분야 이외의 순수 예술에도 서면계약 의무화를 적용할 필요가 있어 2016년에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였음. 18개

다.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자치단체 조례

□ <전라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예술인 복지법> 제정 이후 다수의 지자체에서 예술인 복지증진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였음.

<표 II-1> 자치단체의 예술인복지 관련 조례

연번	지역	조례명	제정연도
1	전남	전라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18
2	광주	광주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15
3	광주	광주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16
4	대전	대전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2013
5	부산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15
6	울산	울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13
7	인천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16
8	인천	인천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16
9	경기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16
10	경기	구리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16
11	경기	안양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16
12	경기	가평군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16
13	경기	여주시 지역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2017
14	전북	전라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16
15	전북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15
16	전북	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17
17	경북	경산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17
18	경북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17
19	경남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15
20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16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전남 조례의 경우 3년마다 ‘전라남도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예술인의 권리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추진 방안
 -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또한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
 -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
 - 예술인의 근로환경 개선
 - 신진·청년 예술인 활동기반 강화
 -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의 경우 지금 전남문화관광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창작지원사업’과 중복이 될 우려가 있고,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이 예술인의 복지 증진사업인지 창작역량 강화사업인지 모호한 측면이 있음.

3. 예술인 복지 관련 정부의 정책

□ 1988년 이후 3년 주기로 ‘예술인실태조사’ 실시

- 최근 2018년 조사결과가 발표되었음. 그러나 2018년의 경우 마이크로 데이터가 아직 공개되고 있지 않아 당 연구에서는 2015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함.
- 2015년과 2018년의 조사규모는 각각 5,008명과 5,002명으로 비슷한 규모이며 설문 항목 역시 비슷하나 몇 가지 문항을 수정하였음. 조사 대상 예술분야 역시 14개 분야로 분야의 개수는 같으나 분야에서 2015년 ‘방송’으로 표현했던 것을 2018년에는 ‘방송연예’로 포함범위를 명확하기 위해 변경하였음.
- 모집단을 추정함에 있어 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한 예술인, ②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수혜 예술인, ③ 문화예술 관련 협회·단체 회원으로 가입된 예술인으로 한정하였음. 특히 ③번의 경우 34개 예술 관련 협회나 단체의 회원 정보를 수집하여 구축하였음.²⁾
- 이렇게 추정된 전남의 모집단은 2,998명(2015년)과 3,718명(2018년)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예술단체나 협회의 조사대상 수를 2015년 34개에서 2018년 64개로 늘린 영향인지, 예술인의 순증인지 파악하기는 어려움.

〈표 II-2〉 2015년과 2018년 실태조사의 전라남도 분야별 모집단 분포

(단위: 명)

구분	전남 합계	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대중 음악
2015	2,998	615	1,115	43	23	8	135	44
2018	3,718	406	1,125	46	493	16	196	120

구분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방송	만화	기타
2015	125	59	237	9	16	23	537
2018	218	83	272	25	28	32	658

2) 2018년 예술인실태조사에서는 64개 예술관련 협회 및 단체의 회원 정보를 수집함.

□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과제 중 하나로 포함.

- 68번 과제인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저작권 보장’이 해당
 - 상위 전략으로는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의 세부 과제임.
 - 이 과제는 예술인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세부내용이 담겨 있고, 향후 정책 영역과 내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 문화비전 2030 ‘사람이 있는 문화’의 핵심사업 중 복지 관련 과제 다수 포함

- 두 번째 비전인 ‘문화예술인·종사자 지위와 권리 보장에 6개 대표 과제 중 4개 과제가 복지 관련 과제임.
- 문화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을 실현할 과제로 표현의 자유 확대, 공정한 대가체계, 노동권과 인권 강화, 통합정책 지원 체계 등을 내걸고 제시하였음.

〈표 II-3〉 자치단체의 예술인복지 관련 조례

구분	대표과제	제정연도
1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법제도 기반 강화	-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법제도 기반 강화 -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상설 협치 기구 설치
2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공정한 대가체계 마련	- 공정보수기준 공시 제도 도입 - 예술가 사례비의 제도화
3	문화예술인/종사자 (예술·스포츠·관광·콘텐츠 분야) 노동권·인권 강화를 위한 제도 확충	- (가칭) 문화예술노동권위원회 운영 - 예술인 직업분류 세분화 추진 - 저작권법 개정 - 예술, 노동, 문화가치에 대한 공교육 시행과 문화행정기관 내 연수워크숍 정례화 - 스포츠인권위원회 독립성 확보와 스포츠 복지제도 강화
4	예술인복지 통합정책 지원 체계 수립	- 예술가들을 위한 연금제도 및 의료지원정책 마련 - 예술인고용보험 도입과 예술인복지센터 개소 - 범정부 차원의 예술인 복지정책의 활성화 - 예술인 창작주거 연계 복지 확산 - (가칭) 예술인 복지 지역협력위원회 운영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 개선 - 스포츠 지도인력 안정적 확보와 근로복지 개선안 마련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국가 단위의 예술인 복지정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전담하고 있으나, 지역과의 연계나 복지 지원 확대 등을 위한 거버넌스 기구는 없음.

4. 예술인 복지 정책에 관한 논의

□ 예술인 복지의 시작 : 문화예술인 공제회 설립 논의 (2003)

- 정갑영(2003)은 당시의 제도 하에서 정규 고용직에 해당되는 문화예술인은 22.9%에 해당하며 이들은 사업장 가입자, 자영업에 종사하는 예술인은 지역 가입자로 분류하는 현실을 지적하였음.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보험료에 대한 지불능력이 부족함을 고려할 때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함.³⁾
- 기초 예술인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비용을 거의 전액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률이 각각 28.4%와 29.5%로 저조할 뿐 아니라 월평균 수입액이 100만원 이하인 예술인이 62.8%에 달할 정도로 소득이 매우 낮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예술인을 특수직역으로 보고 문화예술인 공제회 설립이 필요를 역설함.
- 이영재(2004)는 1980년 유네스코에서 채택한 <문화예술인의 지위에 관한 권고(UNESCO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he Artists)>가 강력한 구속력을 수반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네스코의 국제적 기준은 유럽의 많은 회원국, 캐나다, 호주 그리고 미국의 일부 주에서 문화예술 정책 수립에 지침이 되어 왔음을 지적함.
- 이후 2005년에 예술인 공제회를 설립하기 위한 설계 예산안 39억이 전액 삭감되면서 논의가 정체되었음.
- 박영정(2008)은 예술인 공제회는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흐름(통합형)과 큰 방향에서 맞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유럽의 예술인 복지 제도는 이상적이기는 하나 우리나라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음.
- 그는 문화예술인을 별도의 특수직으로 보고 개별적 사회보장을 실시하기에는 별도의 설계 과정 필요하다고 하였음.

□ 새로운 국면 : 예술인 복지재단의 등장 (2011)

- 김휘정(2011)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예술인 복지법>에 대한 쟁점들을 정리하고 방향을 제시하였음.⁴⁾

3) 당시 직장에 고용되지 않은 예술인들은 자영업자로 분류되고 이들은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에서 지역가입자로 편입되었고, 당시 노동법상 지역 가입자는 개인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함.

- 첫째, 복지 지원 대상인 예술인의 범위가 위임입법으로 포괄적으로 정의되었다는 점, 둘째 예술인에게 사회보장제도 가입 특례를 부여하여 해당 법령이 이원화되고 타 직군과의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 쟁점이라고 정리하였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예술직군의 특수성과 예술 활동의 공공성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고, 둘째, 단속적으로 일하는 순수예술 분야의 예술인과 공연·영상 분야의 기술직을 정책 우선순위 대상으로 선정하되, 일관된 측정 기준을 적용한 전 분야별 예술인 실태조사가 실행되어 향후 법안의 보완이 필요하고 셋째, 예술인 사회보장보험 법령의 일원화, 넷째, 복지재단과 공제회 사업 내역의 현실성 확보, 다섯째,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의 제도화, 마지막으로 문화예술분야 일자리 창출 사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복지증진 정책의 다원화를 제안하였음.
- 아울러 이전 단계에서 줄곧 논의되어 왔던 예술인 공제회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의 타당성을 개진하였음. 복지재단으로 출범하게 되면 예술인을 위한 공적 지원을 매개로 한 보장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노인이나 장애인 등 ‘계층’에 맞추어진 복지제도와 달리 특수 직업군으로 분류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보았음.

4) 2010년 11월 원맨밴드 달빛요정만루홈런의 이진원 씨와 2011년 2월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가 생활고로 운명을 달리하여 예술인 복지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남달랐음.

III

예술인 복지지원 사례분석



III

예술인 복지지원 사례분석

1. 국내 사례 분석 대상 선정

□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예술인복지지원 증진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광역단위 대상

- 전국 단위에서 예술인복지지원이 실시되고 있으나 지역의 문화예술인 입장에서는 개념이 생소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부산과 전북 등에서는 선도적으로 문화예술인복지지원 센터를 설립하여 지역 내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돕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하거나 별도의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 중에 있음.
- 전국적으로 사례가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부산과 전북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기로 함.

□ 예술인 복지에 대한 유의미한 사례나 성과가 나타난 곳을 선별

-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 외에 광역단위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살펴봄.
- 부산의 경우 ‘휴-안심 프로젝트 운영’이라 하여 예술인 힐링캠프를 운영하고 있거나, 관내의 빈집을 활용하는 ‘반딧불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대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분석함.
- 전북의 경우 예술인활동증명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방문하여 진행하는 ‘찾아가는 사업안내 서비스’, 예술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성폭력상담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음.
- 대부분 초기단계에 있어 조직 정비나 예산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유의미한 사례나 성과를 찾기 어렵지만 방향성이나 지역적 특수성에 맞는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전담도에 적용 가능 여부를 분석함.

2. 부산시 : 예산과 인력의 확보를 통해 안정적 복지 지원

□ 부산문화재단 내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운영

- 부산시의 경우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2013년에 제정되었고, 2015년부터 부산문화재단에서 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2017년의 경우 예술인복지지원센터의 예산이 4억 원, 인력이 8명으로 다른 지역보다 적극적으로 예술인복지지원을 하고 있음.
- 예산과 인력의 확보는 예술인 복지지원센터에서 하는 예술인 복지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함.

□ 체계적인 예술인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정책과제 발굴

- 2015년에 <2015년 부산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이때 예술분야별 비례할당 표집을 통해 2,054명의 표본을 확보하였으며 95% 신뢰수준에 $\pm 1.78\%$ 의 오차범위를 갖는 통계를 발표하였음.
- 모집단 설정 방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부산예총과 무산민예총,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NCAS)을 통한 2014년 전국보조금지원공모사업 신청자, 부산만화연대 회원 등 총 6,387명(중복 제외)으로 설정하였음.
- 89개 문항(기초사항 제외)이라는 방대한 분량의 조사를 실시하였음.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 질문을 구성하였는데, ①예술활동 분야 및 실태 파악, ② 부산형 예술인 복지정책에 대한 것임.
- 먼저, 예술활동 분야 및 실태 파악 문항은 다음과 같음.
 - 예술활동 분야 및 활동기간
 - 현재의 직업 및 연간 평균 수입
 - 계약 체결 여부 및 4대 보험 가입 여부
 - 노후 생활 대비
- 부산형 예술인복지정책에 대한 수요 문항은 다음과 같음.
 - 예술활동에 대한 만족도
 - 부산시 예술발전을 위한 필요 정책

- 부산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복지 필요 정책
- 예술인복지법 세부 사업의 중요도
- 부산지역에서 예술활동 하는 이유
- 예술활동증명 인지도

□ 부산형 예술복지 지원사업 추진

- 다른 지역처럼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지역 확산을 위한 코디네이터 사업 등은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그 외에 ① 예술인 일자리 박람회, ② 반딧불이 사업, ③ 휴-안심 프로젝트 운영, ④ 예술인 법률상담 및 신문고 운영, ⑤ 부산 문화예술계 성폭력 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예술인 일자리 박람회의 경우 예술인과 예술문화기획사를 연결해주고 표준계약서 작성을 독려하는 사업으로 2018년의 경우 35개 기관이 운영하고 약 3천 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음.
- 반딧불이 사업의 경우 봉래동과 감만동 등 부산의 8개소 빈집을 활용하여 45명의 예술인들이 입주하여 창작공간을 마련해주고 지원하는 사업임.
- 휴-안심 프로젝트의 경우 전북 전주시에 예술인 힐링캠프를 차리고 예술인들의 신청을 받아 예술인을 위한 인문학 프로그램으로 40여명이 참여함.
- 예술인 법률상담 및 신문고 운영은 예술인 조차 어려워하고 있는 저작권과 관련된 법률 및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분기별로 1회차씩 운영하여 128명이 참여하였음.
- 최근 불고 있는 미투사건에 대응하여 문화예술계 성폭력 및 성희롱 대응센터를 운영하여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문화를 정착시키는 기능을 함.

3. 전라북도 예술인복지증진센터 : 예술인의 사각지대 해소

□ 전라북도예술인복지증진센터 조직

- 여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전북문화관광재단 내에 문화사업팀 소속으로 전라북도예술인 복지증진센터를 두고 있으며, 4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음.
- 전라북도의 예술인 규모에 비해 예술인복지증진센터의 직원 수가 적절한지 논의의 여지는 있으나 예술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 전라북도 예술인복지증진계획 5개년 계획 수립

- 2016년에 전북예술인의 권리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3대 전략(①예술인의 사회적 권리보장, ②창작여건 개선, ③복지전담조직 지정 및 운영)을 수립하고 예술인복지증진 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음.
- 이를 추진하기 위해 예술인복지증진사업의 전담조직을 지정하여 예술인의 사회적 권리보장, 창작여건 개선 등 이전의 예술관련 진흥계획과 다른 복지사업 운영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다만 조직 출범의 역사가 짧고 충분한 예산을 수립하지 못해 초기단계에서 겪는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있어 확실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지금 현재의 네트워크 활성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애매모호함.
- 컨설팅을 하면서 전국 단위로 다니다보니, 경남에 국한하지 않고 전남, 경북, 울산, 대구, 대전으로 많이 감.

□ 전라북도예술인특례보증지원 등 특화사업 추진

- 전라북도예술인특례보증지원은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고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전라북도 내 예술인을 대상으로 제1금융권에서 제공하는 금융상품대출로 도내 예술인에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임. 신청한도는 최소 3백만원부터 5천만원까지 4% 미만의 저리로 지원이 가능하며,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전북은행의 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은 예술인에게 창작활동에 대한 동기를 북돋우고 창작안정망을 구축하도록 하는 준비금 지원사업임.
- 찾아가는 사업 안내서비스는 도내 예술인을 대상으로 원로예술인이나 인터넷 취약계층 예술인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대행하여 신청함으로써 예술인활동증명을 확대하고 타기관 사업의 참여율을 확대시키는 사업임.
- 전시기획프로젝트는 최근 5년 동안 전시활동의 이력이 없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월별 2명씩, 연간 10회 내외로 전시 기회 및 엽서 제작을 제공하여 예술활동증명 신청자료 증빙에 도움을 주고 있음.

IV

2018 예술인실태조사 전남 현황 분석



IV

2018 예술인 실태조사 전남 현황 분석

1. 2018예술인 실태조사 개요

□ 전체모집단 178,540명 중 표본 5,002명으로 설정

- 예술인 실태조사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예술인 대상 조사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조사이며, 유일하게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는 조사임. 때문에 예술관련 기초 통계자료로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음.
- 전체모집단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한 예술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수혜 예술인, 64개 예술관련 협회 및 단체 회원 가입 예술인 등으로 추정한 178,540명이며, 전남의 모집단은 3,718명으로 보고 있음.
- 다만, 지역 미상자가 8,044명으로 전체 모집단의 4.5%임. 또한 전북의 경우 모집단이 5,772명으로 매우 높고 경남도 6,150명으로 대구(6,163명)나 인천(6,094명) 보다 높음. 이는 모집단 추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신청 예술인을 활용했는데, 아직 제도 도입 초기라 전국적 편차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표 IV-1〉 광역자치단체별 조사 모집단 분포

(단위: 명)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모집단	178,540	70,729	8,452	6,163	6,094	5,222	4,120	1,814	394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미상
모집단	35,837	3,796	2,398	3,541	5,772	3,718	4,316	6,150	1,980	8,044

자료 : 〈2018예술인실태조사〉

□ 전남의 표본은 197명으로 설정하였으나 실제 조사된 사례는 158명임.

○ 2015년과 비교할 때 전체 합계에서는 10%정도 줄어들었으나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진이 3배 가까이 늘었으며, 연극은 20% 줄어 편차를 보임.

〈표 IV-2〉 2015년과 2018년 실태조사의 전라남도 분야별 표본 분포

(단위: 명)

구분	전남 합계	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대중 음악
2015	218	25	45	10	8	5	17	9
2018	197	21	34	7	23	4	14	11

구분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방송	만화	기타
2015	16	11	22	5	5	6	34
2018	15	9	17	5	5	6	26

자료 : 〈2015예술인실태조사〉, 〈2018예술인실태조사〉 재구성

2. 2018예술인 실태조사 전남 현황

가. 예술활동 분야

□ 분야별 현재 활동 분야

- 전남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의 분야중 미술(17.3%), 사진(16.7%), 문학(13.5%), 국악(10.9%), 음악(10.3%) 순으로 많음. 전국에 비해 문학, 미술, 사진 등의 비중이 많고, 공예, 건축, 연극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음.

〈표 IV-3〉 분야별 현재 활동 분야

(단위: %)

구분	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대중음악
전국	11.3	12.3	3.2	9.3	3.6	9.7	10.4
전남	13.9	13.3	1.3	16.5	1.9	10.1	7.0

구분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방송연예	만화	기타
전국	5.7	7.2	9.0	4.8	6.6	3.9	3.3
전남	8.2	6.3	7.0	2.5	1.9	1.9	8.2

자료 : 〈2018예술인실태조사〉 재구성

- 이러한 결과가 실재 모집단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분야별 비율도 전남의 예술인 비율에 어느 정도 근접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이러한 비율을 참고로 이후에 정리된 결과를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예술활동 경력

- 전남 예술인의 37.2%는 20년 이상의 예술활동경력을 지니고 있으며, 25.0%는 10년에서 20년 미만의 예술활동 경력을 지니고 있음. 3년 미만은 7.7%로 신규 진입자가 적다고 볼 수 있음. 이는 전남의 인구구조와 맞물린 점이거나 지역 대학에서 인력을 양성하더라도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전국의 경우 10년 미만 경력자가 44.7%로 전남(37.8%) 대비 5.6%p 높고, 20년 이상 경력자가 전국은 21.5%로 전남(47.2%) 대비 25.7%p 높음. 10년 미만의 경우 적고 20년 이상이 많다는 것은 전남예술의 미래를 놓고 생각할 때 결코 유리한 수치는 아님.

〈표 IV-4〉 예술활동 경력

(단위: %)

구분	3년 미만	3년~5년 미만	6년~10년 미만	10년~20년 미만	20년 이상
전국	44.7			28.3	27.0
전남	37.8			25.0	37.2
	7.7	9.0	21.1		

자료 : 〈2018예술인실태조사〉 재구성

□ 지난 1년간 예술작품 발표 횟수

- 지난 1년간 예술작품 발표 횟수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는 3~5회가 29.3%로 가장 많았으나 전남의 경우 1~2회가 40.4%로 가장 많았음.
- 또한 전국적으로 발표 횟수가 한 번도 없었던 비율이 14.1%였음에 비해 전남은 23.7%로 9.6%p 높게 나타남. 11~15회의 경우 전국은 4.8%였음에 비해 전남은 3.2%로 대동소이했고, 16회 이상은 전국이 11.4%였으나 전남은 2.6%로 매우 낮았음.

〈표 IV-5〉 예술작품 발표 횟수

(단위: %)

구분	없음	1~2회	3~5회	6~10회	11~15회	16회 이상
전국	14.1	24.1	29.3	16.3	4.8	11.4
전남	23.7	40.4	17.9	12.2	3.2	2.6

자료 : 〈2018예술인실태조사〉 재구성

- 예술작품 발표횟수는 예술인의 창작활동 활성화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발표횟수가 한 번도 없거나 2회 이하인 경우가 64.1%나 된다는 점은 복지 정책 뿐 아니라 예술인 창작지원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또한 16회 이상의 경우 전국대비 9%p 낮다는 점에서 전남의 창작 활동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판단됨.

□ 저작권 보유현황

- 전남 예술인 중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11.5%에 불과하며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분야는 문학(6.4%), 사진(1.3%), 만화(1.3%) 등임.

〈표 IV-6〉 저작권 보유현황(분야별)

(단위: %)

구분	전체	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대중음악
전국	23.2	5.9	1.4	0.5	0.5	0.3	1.6	7.1
전남	11.5	6.4	0.6	0.6	1.3	-	0.6	0.6

구분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방송	만화	기타
전국	0.6	0.4	0.6	1.2	1.0	1.9	0.2
전남	-	-	-	-	-	1.3	-

자료 : 〈2018예술인실태조사〉 재구성

- 전국과 비교했을 때 전국은 23.2%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남(11.5%)에 비해 11.7%p 높음. 일반적으로 저작권 관리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대중음악의 경우 전국이 7.1%에 비해 전남은 0.6%로 매우 저조한 것은 특이함.

□ 외국에서 예술활동 현황

- 전남 예술인 중 외국에서 예술활동을 한 비율은 1.3%로 매우 적음. 전국 평균이 23.1%임을 비교해 볼 때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할 필요가 있음. 시대적 흐름상 외국활동 경험은 예술활동의 질과 결부되고 있음.

〈표 IV-7〉 외국에서 예술활동 현황(연령별)

(단위: %)

구분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예	1.3	-	-	3.6	2.5	
아니오	98.7	100	100	96.4	97.5	100

자료 : 〈2018예술인실태조사〉 재구성

- 20대 예술인의 경우 아직 신진 예술가이거나 예비 예술가에 머물고 있어 외국의 예술활동 경험이 없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중진 작가로 접어드는 80대 예술인들의 외국 예술활동 경험이 전무하다는 것은 전남 문화예술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큼.
- 청년예술인에 대한 외국 활동을 장려하고 글로벌 감각을 키우는 것은 향후 예술인으로 살아남는 힘으로 축적될 것임을 고려할 때 지금이라도 국제교류도시 등과 협력할 필요가 있음.

□ 지난 1년간 문화예술교육 활동 종사 현황

- 전남 예술인의 24.4%가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34.0%) 대비 9.6%p 낮은 것으로 문화예술교육에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남.

〈표 IV-8〉 문화예술교육 활동 종사 현황(분야별)

(단위: %)

구분	전체	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대중음악
전국	34.0	2.9	5.6	1.5	1.2	0.7	5.2	3.7
전남	24.4	3.9	3.9	0.6	-	-	5.1	0.6

구분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방송	만화	기타
전국	3.4	3.5	2.7	1.0	1.5	0.7	0.4
전남	4.5	2.6	2.6	-	-	-	0.6

자료 : 〈2018예술인실태조사〉 재구성

- 분야별로 살펴보면 음악(5.1%)과 국악(4.5%)의 비율이 높고, 문학(3.9%)과 미술 (3.9%)이 다음 그룹을 형성하고 있음.
- 전국과 비교했을 때 전남은 대중음악이 0.6%에 그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3.7%에 달 해 이 분야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또한 방송, 만화 등의 최신 장르에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다소 보수적인 특성이 있음.

나. 예술인 생활 형태

□ 개인 창작공간 보유 여부 및 소유 형태

- 전남 예술인의 75.0%는 개인 창작공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전국 (50.5%) 대비 14.5%p 높게 나타남. 창작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전남 예술인은 25.0%로 전국 (49.5%) 대비 24.5%p 낮음.
- 창작공간의 위치를 살펴보면 집안에 보유하고 있는 예술인은 14.1%로 전국(22.5%) 대비 8.4%p 낮게 나타났으며, 집밖에 보유하고 있는 전남 예술인은 10.9%로 전국 (27.0%) 대비 16.1%p 차이가 남.

〈표 IV-9〉 개인 창작공간 보유 여부

(단위: %)

구분	있음(집안)	있음(집밖)	없음
전국	22.5	27.0	50.5
전남	14.1	10.9	75.0

자료 : 〈2018예술인실태조사〉 재구성

- 개인 창작공간을 소유하고 있는 전남 예술인 중 자가는 16.0%이며, 전세는 5.1%, 월세는 3.2%, 무상임대는 0.6%인 것으로 나타남.
- 전국과 비교할 때 자가는 21.3%p 낮고, 전세는 8.4%p, 월세는 41.3%p, 무상임대는 4.1%p 낮음. 특히 월세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창작활동에 따른 수입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으로 파악되어 근본적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 단순히 창작공간을 지원해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작활동으로 이어지고, 그에 따른 수입원이 발생해야 예술가의 자생력이 확보되는 것임.

〈표 IV-10〉 개인 창작공간 소유 형태

(단위: %)

구분	자가	임대(전세)	임대(월세)	무상임대
전국	37.3	13.5	44.5	4.7
전남	16.0	5.1	3.2	0.6

자료 : 〈2018예술인실태조사〉 재구성

□ 지난 1년간 예술인의 가구 총 수입

- 지난 1년간 예술인 가구의 총수입은 전국 평균 4,224만원이며 전남은 평균 3,659만원으로 약 6백만원 적음.
- 구간별로 나누어 보면 2천~3천만원 소득이 전국적으로 20.8%가 속한 반면 전남은 12.8%로 8%의 격차를 보임.
- 다행스러운 것은 중위소득 구간이라 볼 수 있는 4천~5천미만 구간이 전국 11.7%에 비해 전남이 16.0%로, 5천~6천 미만 구간에서는 전국 7.6%, 전남 11.5%로 전남이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물론 고소득 구간이라 할 수 있는 6천만원 이상부터는 전남이 전국의 비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전남 예술인의 가구 총 수입이 전국 평균에 비해 열세인 것은 분명하지만 고소득 구간이 부족하고 중위소득 구간은 전국 평균보다 높아 가장 좋지 않은 상황은 피한 것으로 나타남.
- 예술인 가구의 총수입이 많고 적음에 따라 예술인 복지 정책의 방향을 달리할 것은 아니나 기본적으로 예술인이 어떤 일상 속에서 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의미가 있음.

〈표 IV-11〉 지난 1년간 예술인의 가구 총 수입

(단위: %, 만원)

구분	1천미만	1천~2천미만	2천~3천미만	3천~4천미만	4천~5천미만
전국	3.0	20.0	20.8	16.8	11.7
전남	2.6	20.5	12.8	15.4	16.0

구분	5천~6천미만	6천~7천미만	7천~8천미만	8천이상	평균(만원)
전국	7.6	6.2	3.6	10.3	4,224.7
전남	11.5	4.5	0.0	5.8	3,659.2

자료 : 〈2018예술인실태조사〉 재구성

- 예술활동으로 인한 수입을 포함한 예술인의 가구 총 수입을 살펴보면, 건축, 공예, 방송연예 순으로 나타났으며, 예술활동 수입과 동조하는 현상을 보임.

〈표 IV-12〉 분야별 예술인의 가구 총 수입

(단위: 만원)

분야	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국악
전국평균	3,995.5	3,519.3	5,467.5	4,925.6	10,291.8	4,770.9	4,223.6
전남평균	4,086.3	3,788.3	4,793.5	4,987.5	9,128.5	4,560.7	3,585.4

분야	대중음악	방송연예	무용	연극	영화	만화	기타
전국평균	4,014.7	5,375.9	3,924.2	4,082.2	3,713.5	4,044.7	3,951.4
전남평균	3,945.6	4,924.3	3,733.2	3,527.2	4,304.2	4,054.4	3,782.0

자료 : 〈2018예술인실태조사〉 재구성

□ 개인 수입 중 예술활동 수입

- 지난 1년간 예술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없음이 43.2%로 가장 많고, 5백만원 미만 이 32.3%로 다음을 차지하고 있음. 이에 반해 전국은 수입없음이 28.8%이고 5백만원 미만이 27.4%로 각각 14.4%p, 4.9%p 낮음.
- 한편 5백만원 이상부터는 전남이 전국 평균에 비해 낮아지는데 특히 1천만원 이상부터 4천만원 미만까지는 대략 4%p 내외 차이가 있음. 이 구간이 중요한 이유는 예술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1천만원 이상 된다면 점업에 대한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예술활동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임.

〈표 IV-13〉 개인 수입 중 예술활동 수입

(단위: %)

구분	없음	5백만원 미만	5백~1천만원	1~2천만원	2~3천만원	3~4천만원	4~5천만원	5천만원 이상
전국	28.8	27.4	10.7	13.2	7.4	4.4	2.0	6.0
전남	43.2	32.3	9.7	9.0	3.2	0.7	1.2	0.7

자료 : 〈2018예술인실태조사〉 재구성

- 예술활동 역시 꾸준히 창작하고 발표를 하며 소통을 통해 다시 한 단계 발전하는 선순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 구간의 수입 비중을 늘리는데 목표를 둘 필요가 있음.
-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남에서 소득평균이 가장 높은 분야는 건축으로 5,331만원이며, 다음으로 만화가 2,109만원, 방송연예가 1,966만원 순으로 나타남. 반면 사진이 288만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문학이 588만원, 미술이 872만원, 음악이 1,003만원, 연극이 1,077만원 등의 순으로 낮았음.

〈표 IV-14〉 분야별 예술인의 예술활동 개인 수입

(단위: 만원)

분야	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국악
전국평균	549.9	868.8	948.8	329.0	5,808.1	1,127.9	1,749.8
전남평균	588.5	872.5	1,230.8	288.8	5,331.8	1,003.6	1,128.5
분야	대중음악	방송연예	무용	연극	영화	만화	기타
전국평균	1,297.7	2,065.2	1,029.8	1,891.2	1,510.3	2,177.0	1,331.1
전남평균	1,403.1	1,966.2	1,047.7	1,077.3	1,812.0	2,109.2	1,458.1

자료 : 〈2018예술인실태조사〉 재구성

□ 개인 수입 중 예술 관련(교수, 강사 등) 수입

- 지난 1년간 예술과 관련된 교육활동 즉, 교수나 강사 등의 수입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 754만원에 비해 전남은 730만원으로 24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큰 의미를 두기 어려움.
- 구간별로 살펴보면 예술관련 수입이 전혀없는 비율이 전국 46.9%임에 비해 전남이 63.5%로 16.6%의 차이를 보임. 이 부분이 전남의 평균 금액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됨.
- 5백만원 미만이나 5백~1천만원 미만의 경우도 전국대비 각각 14.5%, 3.9%의 차이를 보임. 그러나 수입구간대가 높아질수록 비율이 대동소이해지다가 3천~4천미만 구간에서는 전남이 0.4%차이로 더 많고, 그 이상 구간에서는 미약하나 전국대비 우위를 점하고 있음.
- 예술 관련 교육 활동은 교육정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평준화된 결과로 보임. 다만 광역시와 광역도의 차이는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광역도인 전남도의 상황이 안좋은 것은 아님.

〈표 IV-15〉 지난 1년간 예술 관련(교수, 강사 등) 수입

(단위: %, 만원)

구분	없음	5백만원 미만	5백~1천미만	1천~2천미만	2천~3천미만
전국	46.9	18.3	10.3	11.7	5.8
전남	63.5	3.8	6.4	11.5	5.8
구분	3천~4천미만	4천~5천미만	5천~6천미만	6천이상	평균(만원)
전국	3.4	0.8	0.9	1.9	754.5
전남	3.8	1.9	1.3	1.9	730.3

자료 : 〈2018예술인실태조사〉 재구성

□ 지난 1년간 예술인의 비예술 관련 수입

- 전남예술인의 지난 1년간 비예술 직업으로 인한 수입은 없음이 53.2%로 높게 나타났음. 전국(56.0%)에 비해 2.8% 낮은 수치로 큰 비율은 아님.
- 앞서 예술활동으로 인한 수입 중 최저 생계비로 볼 수 있는 2천만원 미만 수입자가

23.1%임을 감안할 때 예술관련 활동이나 가족원의 수입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음.

- 비예술로 2천만원 이상 수입을 얻는 예술인의 비율이 27.5%임. 전국 평균 15.0%에 비해 광주는 12.5%p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수치상으로 양호함.

〈표 IV-16〉 지난 1년간 비예술 수입

(단위: %, 만원)

구분	없음	5백만원 미만	5백~1천미만	1천~2천미만	2천~3천미만
전국	56.0	13.1	6.7	9.2	5.6
전남	53.2	2.6	5.1	11.5	8.3

구분	3천~4천미만	4천~5천미만	5천~6천미만	6천이상	평균(만원)
전국	4.2	1.9	1.1	2.2	777.2
전남	6.4	3.2	6.4	3.2	1,390.3

자료 : 〈2018예술인실태조사〉 재구성

- 또한 평균 금액에 있어서도 전국 777만원이나 전남은 1,390만원으로 전남이 약 600만원 높게 나타남. 이는 비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별도로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임. 전남의 경우 농업에 종사하는 예술인이 많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전무한 상황임. 차후에 기회가 있다면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음.

□ 지난 1년간 예술 학습 및 훈련 등의 지출

- 전남예술인의 지난 1년간 예술 학습이나 훈련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없음이 26.3%로 전국 36.6% 대비 낮게 나왔음. 하지만 1백만원 미만이 67.3%로 상당수가 해당함. 1백만원 미만이 93.6%로 절대 다수임. 1백만원에서 3백만원 미만이 3.2%로 전국 20.5% 대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평균 금액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전국 평균 341만원에 비해 전남 평균 37만원으로 약 10배 가까이 격차를 보이고 있음. 이는 예술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비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잠재적 성장능력이 떨어지는 수치로 이해하여도 무방함.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표 IV-17〉 지난 1년간 예술 학습 및 훈련 등의 지출

(단위: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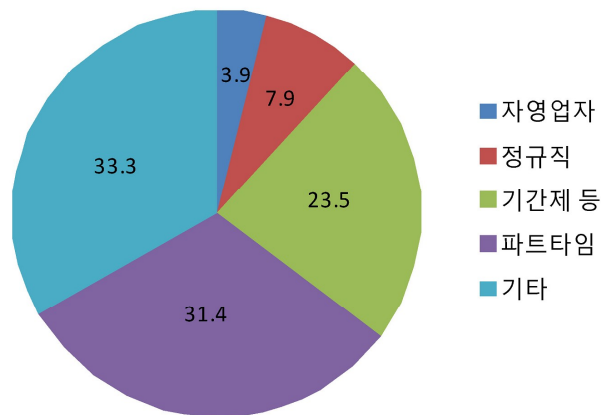
구분	없음	1백만원 미만	1백~3백만	3백~5백미만
전국	36.6	15.0	20.5	9.6
전남	26.3	67.3	3.2	0.6

구분	5백~8백미만	8백~1천미만	1천만원 이상	평균(만원)
전국	9.1	0.6	8.5	341.2
전남	2.6	-	-	37.4

자료 : 〈2018예술인실태조사〉 재구성

다. 예술인 고용형태 및 예술활동 환경

□ 전업예술인 고용형태



자료 : 〈2018예술인실태조사〉 재구성

- 전남 예술인 중 전업예술인의 경우 기타(33.3%)와 파트타임(31.4%)이 가장 많고 다음이 기간제 등이 23.5%로 나타남. 정규직은 7.9%임.
- 정규직은 국악, 건축, 방송분야에만 있으며, 파트타임이 가장 많은 분야는 사진으로 7.8%임. 다음으로 미술과 대중음악이 5.9%를 차지하고 있음.

〈표 IV-18〉 전업예술인 고용형태(분야별)

(단위: %)

구분	전체	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대중음악
자영업자	3.9	3.9	-	-	-	-	-	-
정규직	7.9	-	-	-	-	2.0	-	-
기간제 ⁵⁾ 등	23.5	3.9	5.9	-	-	-	-	2.0
파트타임	31.4	3.9	5.9	-	7.8	2.0	-	5.9
기타	33.3	-	7.8		11.8	2.0		

구분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방송	만화	기타
자영업자	-	-	-	-	-	-	-
정규직	3.9	-	-	-	2.0	-	-
기간제 등	-	-	3.9	3.9	-	3.9	-
파트타임	2.0	2.0	-	-	-	2.0	-
기타	2.0	5.9	2.0	2.0	-	-	-

자료 : 〈2018예술인실태조사〉 재구성

□ 겸업예술인 고용형태

- 겸업예술인 중 예술활동을 직업을 삼는 전남 예술인 중에서 파트타임이 35.9%로 가장 높음.

〈표 IV-19〉 겸업예술인 고용형태-예술활동직업(분야별)

(단위: %)

구분	자영업자	기간제 등	파트타임	기타
비율	3.9	5.8	35.9	21.8

자료 : 〈2018예술인실태조사〉 재구성

- 겸업예술인 중 비예술활동을 직업으로 삼는 전남 예술인 중에서 자영업자가 39.6%로 가장 높고 정규직은 37.5%로 다음을 차지함.
- 분야별로 보면 사진의 경우 정규직이 14.6%, 자영업자가 12.5%로 가장 높음. 다음으로 문학 분야가 정규직 8.3%, 자영업자가 6.3%로 높음.

5) 기간제와 계약직, 임시직, 촉탁직을 말함.

〈표 IV-20〉 겸업예술인 고용형태-비예술활동직업(분야별)

(단위: %)

구분	전체	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대중음악
자영업자	39.6	6.3	4.2	-	12.5	-	2.1	2.1
정규직	37.5	8.3	2.1	2.1	14.6	-	2.1	2.1
기간제 등	8.3	6.3	-	-	-	-	2.1	-
파트타임	10.4	-	2.1	-	-	-	-	2.1
일용직	4.2	-	4.2	-	-	-	-	-

구분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방송	만화	기타
자영업자	4.2	2.1	2.1	-	-	-	-
정규직	2.1	-	4.2	-	-	-	-
기간제 등	-	-	-	-	-	-	-
파트타임	2.1	-	2.1	-	2.1	-	-
일용직	-	-	-	-	-	-	-

자료 : 〈2018예술인실태조사〉 재구성

- 일용직의 경우 미술이 4.2%로 일용직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간제에서는 문학이 6.3%로 가장 높음.
- 파트타임의 경우, 미술, 대중음악, 국악, 연극, 방송이 공히 2.1%로 나타났다.
- 건축, 영화, 만화의 경우 비예술분야의 겸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예술활동 외 직업 종사 이유

- 전남 예술인이 예술활동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이유로는 불규칙한 소득이 49.5%로 가장 높았으며, 낮은 소득은 응답자가 없었음. 비표본오차의 가능성이 충분함.

〈표 IV-21〉 예술활동 외 직업 종사 이유

(단위: %)

구분	현재 예술활동에서의 낮은 소득	현재 예술활동에서의 불규칙한 소득	현재 예술활동에서의 고용 불안정	현재 예술활동에서의 열악한 작업환경	기타
전국	46.5	27.1	10.7	2.4	13.3
전남	-	49.5	23.4	1.9	25.2

- 낮은 소득보다 불규칙한 소득에 대한 비율이 더 높은 것은 규칙적인 소득을 통해 계획적인 생활을 꾸려가는 삶을 선호한다는 점임. 따라서 낮더라도 일정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음.

□ 겸업 예술인의 예술활동 및 비예술활동 직업 투입 시간

- 겸업 예술인의 예술활동 직업 투입 시간은 10.9시간으로 전국(14.8시간) 대비 3.9시간이 적음.
- 투입시간이 가장 많은 분야는 만화로 29.1시간이었으며, 건축(15.0), 공예(13.0) 순으로 나타남.
- 투입시간이 가장 낮은 음악은 6.4시간으로 가장 많은 만화와 22.7시간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음악과 더불어 미술과 사진 역시 한 자릿수 단위로 예술활동에 시간을 투입하고 있어 타장르에 비해 잠재적 경쟁력이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

〈표 IV-22〉 겸업 예술인 주 평균 예술활동 투입시간

(겸업 예술인, 단위: 시간, %)

분야	예술활동 시간		예술활동 외 시간	
	전국	전남	전국	전남
전체	14.8	10.9	43.8	48.4
문학	12.0	11.5	41.3	47.3
미술	16.7	9.6	41.9	45.3
공예	17.3	13.0	45.9	60.2
사진	9.4	8.0	47.2	50.5
건축	25.1	15.0	33.7	54.9
음악	12.1	6.4	43.1	52.2
국악	10.6	10.4	46.2	50.4
대중음악	15.8	12.4	50.1	55.8
방송연예	13.9	12.1	51.3	45.6
무용	14.9	12.3	40.5	43.4
연극	18.3	12.1	37.5	43.7
영화	21.2	17.7	42.1	40.9
만화	27.3	29.1	41.0	41.2
기타	12.0	12.1	44.1	47.3

자료 : 〈2018예술인실태조사〉 재구성

- 예술활동 외 투입시간은 48.4시간으로 전국(43.8) 대비 4.6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예술활동 외 투입시간이 가장 많은 분야는 공예로 60.2시간이었으며, 대중음악(55.8), 건축(54.9), 음악(52.2) 순으로 많았음.
- 예술활동 투입시간이 적고 예술활동 외 투입시간이 많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창작활동의 활성화와 연결이 되며,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이 뒤쳐질 수밖에 없는 여건임.

□ 지난 1년간 예술활동 계약 체결 경험

- 전남예술인은 지난 1년간 예술활동을 하면서 계약 체결 경험을 한 비율이 22.4%에 불과함. 연극(4.4%)과 대중음악(3.2%)의 비율이 높음.
- 음악, 만화, 방송 등은 1.3%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국악, 미술, 영화는 1.9%로 다음으로 낮음.

〈표 IV-23〉 지난 1년간 예술활동 계약 체결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대중음악
전국	42.6	3.6	5.4	1.2	1.2	1.2	4.6	3.8
전남	22.4	2.6	1.9	-	-	-	1.3	3.2

구분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방송	만화	기타
전국	2.9	3.3	6.1	3.0	3.0	2.6	0.7
전남	1.9	2.6	4.4	1.9	1.3	1.3	-

자료 : 〈2018예술인실태조사〉 재구성

- 전국은 42.6%로 전남의 약 2배 가량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가장 높은 분야는 연극(6.1%), 미술(5.4%), 음악(4.6%) 순으로 나타남.

□ 지난 1년간 지원금 수혜 여부

- 지원금 수혜경험이 전무한 비율이 전국 평균 22.5%임에 비해 전남은 43.7%로 21.2% 높아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IV-24〉 지난 1년간 정부/기업/개인 지원금 수혜 여부

(단위: %)

구분	원고료	출연료	작품판매료	저작권수입	급여	보조금 및 지원금	없음
전국	5.8	20.9	18.0	6.2	18.6	7.3	22.5
전남	7.6	23.4	8.9	3.8	5.7	7.0	43.7

자료 : 〈2018예술인실태조사〉 재구성

-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금의 경우 전국 평균인 7.3%와 대동소이한 7.0%로 나타나 이 부분에 있어 형평성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음.
- 그에 반해 예술가의 자생적 기반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작품판매료, 저작권수입, 급여 등에 있어 전국대비 2~3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보조금 및 지원금이 공예(25.0%), 문학(23.8%), 미술(14.8%), 대중음악(9.1%) 등에 한정되어 있음. 무용, 국악, 연극 등은 사례가 나타나지 않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표본오차일 가능성이 높음.

〈표 IV-25〉 지난 1년간 정부/기업/개인 지원금 수혜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대중음악
원고료	7.6	38.1	-	-	-	-	6.3	-
출연료	23.4	-	3.7	-	-	-	37.5	63.6
작품 판매료	8.9	-	25.9	25.0	11.5	50.0	6.3	-
저작권수입	3.8	19.0	3.7	-	-	-	-	-
급여	5.7	-	7.4	-	-	-	6.3	-
보조금 및 지원금	7.0	23.8	14.8	25.0	-	-	-	9.1
없음	43.7	19.0	44.4	50.0	88.5	50.0	43.8	2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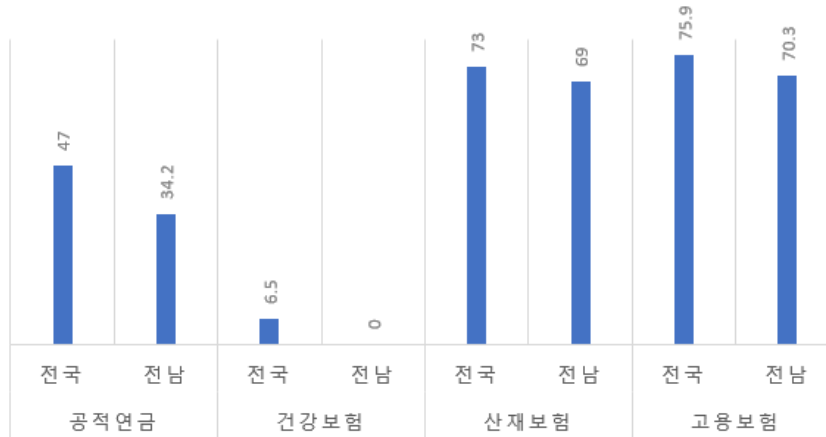
구분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방송	만화	기타
원고료	-	-	-	-	-	66.7	-
출연료	52.9	50.0	54.5	-	-	-	50.0
작품 판매료	-	-	-	33.3	-	-	-
저작권 수입	-	-	-	-	-	33.0	-
급여	11.8	-	9.1	66.7	-	-	-
보조금 및 지원금	-	-	-	-	-	-	-
없음	35.3	50.0	36.4	-	-	-	50.0

자료 : 〈2018예술인실태조사〉 재구성

- 전남의 경우 방송은 원고료나 출연료 등 일체의 수혜를 받은 경우가 나타나지 않았음. 이는 이들 분야의 특성으로 파악됨.

□ 4대 보험 미가입률

- 전국과 비교할 때 전남의 미가입률이 낮아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남.



〈그림 IV-1〉 4대보험 미가입률 비교

- 다만, 표본이 충분치 않은 관계임은 유념할 필요가 있음.
- 분야별로 보면 문학, 미술, 연극, 영화 등의 분야에서 4대 보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안정적임. 반면 음악, 대중음악, 만화 등에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미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V-26〉 분야별 4대보험 미가입률

(단위: 시간, %)

분야	공적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전국	전남	전국	전남	전국	전남	전국	전남
전체	47.0	34.2	6.5	-	73.0	69.0	75.9	70.3
문학	49.4	27.3	5.4	-	75.7	68.2	77.5	68.2
미술	54.2	33.3	2.3	-	84.7	76.2	89.9	81.0
공예	30.5	0.0	1.3	-	63.0	0.0	71.4	0.0
사진	49.3	42.3	3.7	-	67.3	73.1	69.9	73.1
건축	7.7	0.0	0.0	-	17.2	33.3	35.7	33.3
음악	31.0	31.3	8.5	-	62.2	81.3	60.5	68.8
국악	51.6	15.4	4.2	-	76.2	46.2	79.6	38.5
대중음악	53.7	54.5	13.1	-	76.9	81.8	75.0	81.8
방송연예	37.3	0.0	6.6	-	72.4	66.7	80.8	66.7
무용	48.0	50.0	12.4	-	69.4	60.0	75.2	90.0
연극	44.8	18.2	11.8	-	72.9	54.5	69.9	54.5
영화	48.5	25.0	7.5	-	74.0	50.0	76.9	50.0
만화	65.3	66.7	6.0	-	94.4	100.0	95.2	100.0
기타	35.7	53.8	3.6	-	51.8	84.6	57.6	92.3

자료 : 〈2018예술인실태조사〉 재구성

□ 예술 경력 단절 경험 여부

- 전남 예술인 중 경력 단절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예술인은 2.6%이며, 전국(23.9%) 대비 21.3%p 낮게 나타남. 이는 전남의 경우 예술 경력 단절의 경험 비율이 낮은 이유가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남 예술인의 경력단절이 매우 적다고 해서 복지 여건이 괜찮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임.

〈표 IV-27〉 예술 경력 단절 경험 여부

(단위: %)

경력 단절 경험 있음	2.6
경력 단절 경험 없음	97.4
경력 단절 경험 있음(전국)	23.9

자료 : 〈2018예술인실태조사〉 재구성

□ 예술 단체 가입 여부

- 전남 예술인 중 단체에 가입했다고 응답한 예술인은 81.4%이며, 미가입자는 18.6%에 그침. 통계학적으로 미가입율에 대한 의미는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가입한 후 예술활동을 이어가는 것으로 파악해도 무방함.

〈표 IV-28〉 예술 단체 가입 여부

(단위: %)	
예술단체 가입	81.4
예술단체 미가입	18.6

자료 : 〈2018예술인실태조사〉 재구성

3.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전남 예술인 수혜 현황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지원 사업 종류

- 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① 창작역량강화, ② 직업역량강화, ③ 불공정관행 개선, ④ 사회안전망 구축, ⑤ 예술활동증명 및 기반 조성으로 나누어짐.
- 재단에서 통계자료를 공개하고 있는 예술활동증명,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등에 대해 전남의 수혜 현황을 살펴기로 함.

□ 전남의 예술활동증명 현황

- 재단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지 지원 사업 중 하나인 예술활동 증명은 2018년에만 6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확산되었음.
- 전남예술인은 2015년 271명에서 2018년 639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수준은 아님. 특히 전북의 경우 2015년 466명에서 2018년 1,396명으로 급증하였는데 이는 예술인복지지원센터의 설립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됨. 전북의 예술인복지지원센터에서는 예술활동증명에 대한 코디네이터를 별도로 주고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예술활동증명이 이루어진 것임.

〈표 IV-29〉 지역별 예술활동증명 현황

(단위: 명)

구분	전체	전남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2015	20,526	271	339	234	190	466	208	427
2016	34,731	411	540	377	367	665	391	836
2017	46,659	528	705	499	500	971	543	1,696
2018	57,417	639	874	627	649	1,396	669	2,964

자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내부자료

□ 전남의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수혜 현황

- 전남 예술인 중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을 받은 예술인은 2016년 30명에서 2018년 42명으로 큰 변동은 없으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여기서도 주목할 점은 전북은 2016년 68명에서 2018년 107명으로 증가폭이 전남을 상회한다는 점임.

〈표 IV-30〉 지역별 예술활동증명 현황

(단위: 명)

구분	전체	전남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2016	4,000	30	61	47	61	68	52	62
2017	4,014	39	45	39	60	87	55	96
2018	4,501	42	69	68	53	107	74	105

자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내부자료

□ 전남의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수혜 현황

- 전남 예술인 중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예술인은 2016년 8명에서 2018년 2명으로 큰 폭으로 줄었음. 이는 사업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견되고 사업결과에 대한 기대치가 줄어서 줄어드는 측면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강원, 전북, 경남, 충북은 많이 받는데 비해 충남, 경북, 전남은 상대적으로 적게 지원받고 있음.

〈표 IV-31〉 지역별 예술활동증명 현황

(단위: 명)

구분	전체	전남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2016	1,014	8	18	6	3	14	3	13
2017	1,000	2	21	14	1	21	6	9
2018	1,000	2	16	13	1	16	3	7

자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내부자료

□ 예술인 복지 지원 전담 조직 시급

-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전남의 예술인이 지원받는 사업은 전반적으로 저조함. 이는 전남의 예술인에게 아직 예술복지지원사업의 개념이 생소하거나 절차가 복잡하여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주원인임.
- 예술인 복지 지원에 대한 전담 조직을 꾸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지원사업을 최대한 지원 받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V

전남예술인 복지증진방안



1. 전남 예술인 복지 정책 기본 방향

□ 전남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기반 조성

- 전남도는 <전라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의 제3조에 의거 3년마다 전라남도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을 수립해야 함. 그러나 예술인 복지 개념이 대두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책 기반이 매우 취약함.
- 첫째, 가장 기초적인 것이 실태조사임. 그러나 중앙정부차원에서 실시하는 예술인실태조사는 지역차원에서 활용하기에 여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시책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정책 수립도 어려운 상황임. 이는 모집단 추정의 어려움과 결부되는데, 실질적으로 전남의 예술인이 몇 명인지 알기 어려움. 실제로 예술활동을 하면서도 영농 정책 관련 지원금이 많아 농업인으로 등록을 한 예술인들도 상당수 있음. 모집단 추정이 어려워 표본추출이 어렵고 이 때문에 실태조사 시행 자체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는 정책 수립에 있어 매우 어려운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음.
- 둘째, ‘예술인 복지’의 모호성임. 이로 인해 담당부서 및 사업 시행 전문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이 있을 수 있음. 예술인과 관련된 정책은 문화예술과에서 맡는 것이 당연하나 ‘복지’가 붙게 되면 복지 관련 부서와 업무 중복을 지적하며 사업 시행 기관도 바뀌지게 됨. 즉, 전남문화관광재단에서 전남복지재단으로 넘어갈 수 있음. 그러나 정책의 범주는 명확히 문화예술과이며 전남문화관광재단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문화예술 정책, 청년 정책, 그리고 전남도의 복지정책 등 예술인 복지 정책과 연관이 있는 분야의 계획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궁극적으로 전남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제고시켜야 함.
- 셋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주체들이 모호함. 이를 위해 <전라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복지증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조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예술인 복지증진 위원회’의 조직과 실질적인 활동을 통한 예술인들의 복지 증진 체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넷째, 세부 사업들을 개발하고 이를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실행할 기본계획이 없음. 실질적으로 예술인 복지 증진과 관련된 업무 담당도 없음. 그러다보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실행력이 상대적으로 낮음.
- 결론적으로 전라남도에는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주체임을 자각하고 예술인 복지 정책 기반이 안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① 제도 정비와 예산 마련을 통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② 전남 예술인의 과학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현실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 전남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정책 기반 조성과 함께 인프라 구축이 진행되어야 함. 인프라는 물적토대 뿐만 아니라 인적 토대까지 포함한 개념임.
- 가장 시급한 인프라가 전남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전담할 기구임. 전북이나 부산의 사례처럼 ‘전남 예술인 복지 센터’를 설립하여 한국예술인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응하고 전남 예술인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전남형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을 발굴 및 시행해야 함.
- 다음으로 전남 예술인이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육성해야 함. 실태조사에서 나타났듯 전남 예술인의 자생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저작권 보유, 작품 판매액, 연간 수입액 중 예술 활동으로 인한 수입액 등은 전국 평균 이하에 그침. 이를 높이기 위해 전남의 문화예술 시장을 키워가는 정책과 함께 예술인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육성하여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해야 함.
- 아울러 전남 예술인 복지 증진 정책의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함. 다른 정책에 비해 특히 홍보가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① 예술인 복지에 대한 인지도가 전라남도 내에서 생소하고 ② 전남 예술인의 문화예술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점, ③ 다른 지원 사업과 달리 복지 증진 정책은 사실상 도입기에 불과해 대대적인 홍보를 통한 정책

실행률 제고가 필요하기 때문임. TV나 라디오 등의 전통적인 미디어를 비롯해서 SNS 등의 뉴미디어까지 포괄하는 정책 홍보가 필요함.

□ 예술인 개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예술인 복지 증진은 창작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 외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예술인으로 존중받으며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음.
- 예술인이 창작하는 과정에서 받은 고통은 물론이고 직업 모델로서 불안정한 예술인이 갖는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 이로 인한 자존감 저하, 그리고 예술 창작 활동 포기라는 악순환이 형성되고 있음.
- 현실적으로 예술인이 처한 문제를 만족 가능한 수준으로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고 공공의 개입 혹은 지원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음.
- 예술인 복지 증진은 다른 계층의 복지사업과 달리 생활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성격의 수당 지급이 아니며, 보편적인 삶의 수준을 누리기 위해 최소한의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님. 따라서 예술인의 자존감 회복과 연대감 형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이를테면 정기적으로 예술인에 한해 신청을 받아 힐링캠프를 개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예술의 어려움을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예술인이 보편적으로 겪는 어려움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일깨우는 사업임.
- 또한 예술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할 예술작품 감상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도 필요함. 전남수목비엔날레 등을 비롯한 공공문화예술시설 관람료를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것들이 해당됨.
- 현실적으로 정부나 기업 등에서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받는 것은 한정적임. 때문에 지원금이나 보조금이 아니라 예술가 개인이 대출을 받아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고려할 수 있음.

□ 창작활동 제고를 위한 전남 예술 정책과 연계

- 예술인 복지 증진의 궁극적 목적은 창작활동을 활성화하는데 있음. 또한 문화예술지원사업 역시 창작활동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음. 때문에 중복이 되거나 방향성이 분

명하게 정립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예술인 복지 정책은 문화예술진흥 정책의 범주 안에 있음. 때문에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이야기하는 복지 정책과는 확연히 다른 영역이며,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차원의 예술인 복지 정책으로 작동해야 함.
- 예술인 복지 정책에서 창작지원 사업을 펼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창작활동과 관련해서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간접적 지원으로 국한되어야 함.
- 이러한 견지에서 문화예술 창작지원 사업과 연계한 청년예술인 쿼터제 도입을 검토해야 함. 전남의 경우 신진 혹은 예비 예술인의 진입비율이 낮음. 이를 높이기 위해 청년 예술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문화예술 창작지원 사업의 경우 전남은 단체에 비중을 두고 지원을 해왔는데 이에 대한 장단점은 분명히 있음. 때문에 지원 사업액의 일정 비율을 청년예술인에게 할당하여 청년예술인이 관내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함.
- 또 한 가지 고려할 것은 문화예술교육과 연계한 도서지역 장기 레지던스 지원사업임. 전라남도의 경우 도서지역이 전국에서 제일 많아 도서민에 대한 예술정책이 특화되어야 함. 문화예술교육의 경우 문화예술강사를 도서지역에 파견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과제임. 섬에 들어가기 위해 반나절을 보내고 강의 2-3시간을 마치고 나오는 배가 없어 1박을 해야 하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예술강사에 지급되는 비용은 교통비와 강의료임. 때문에 기피지역이 되었음. 이를 해소하고 예술인의 창작활동도 돕기 위해 도서지역의 경우 장기 레지던스를 지원하는 것임. 이를 통해 예술가에게는 창작의 기회도 부여하고 도서 지역민과 학생에게는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

VI

결론



VI

결론

- 본 연구에서는 전라남도 예술인 복지에 관한 논의를 통해 전남 예술인의 창작권리와 예술인으로서 존중받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음.
- 2018 예술인 실태조사에서 전남 거주 예술인들의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수치가 전국 평균 이하였으며, 특히 예술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매우 적고 20~30대 예술인의 진입이 어렵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었음. 또한 예술인 실태조사가 국가승인 통계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반이 갖추어진지 오래지 않아 2015년에 이은 두 번째 조사여서 모집단 추정과 표본 추출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음.
- 일부 지자체에서는 별도로 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북과 부산의 경우 예술인 복지 증진 센터를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을 보이고도 했음.
- 전남의 경우 2018년에 <전남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예술인 복지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었으나 실무적인 기반과 인프라, 그리고 도내 예술인들의 인지도 저하 등으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그 결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에 지역 수혜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으며, 이러한 결과로 2018예술인실태조사에서 전남도의 모집단 자체가 축소된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함.
- 현지 별도의 용역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전남예술인 실태조사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아울러 예술인 복지 기본계획에 준하는 수준의 연구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됨.
- 무엇보다 예술인 복지 증진에 대한 철학이 정립되어야 함. 국가적 이슈가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법안이 마련되고 정책이 추진되는 것은 여론에 떠밀려 급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예술인의 복지가 무엇인지 왜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서 복지 증진에 힘써야 하는지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상황임.

-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과 예술인 창작 지원사업은 명확히 다른 사업임. 예술인 창작 지원사업이 창작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복지 증진 사업은 창작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술인이 우리 사회에서 창작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음.
- 그렇다면 창작 지원사업에서는 지원할 수 없었던 예술인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육성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관점에서 예술인으로서 갖는 어려움과 고민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창작활동을 위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도 혁신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한데, 기본적으로는 조례의 모호한 부분들을 명확히 하는 조례 개정,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예술인 복지 증진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 설립, 문화예술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타 사업과의 연계 등 전반적인 행정체계의 수정 보완이 필요함.
- 예술인 복지의 궁극적 목적은 예술인의 창작 활동 활성화에 있음. 이에 대한 도내의 관심과 인지도가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임. 그렇다고 처음부터 대대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하더라도 내실 있게 사업의 성과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함.

참고문헌

- 2015 예술인 실태조사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17 예술인복지재단 백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8 예술인 실태조사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18 예술인복지재단 백서,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2015 부산예술인 실태조사, 부산문화재단
2018 광주 예술인 복지지원 정책보고서, 광주문화재단
- 정갑영(2003),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연구
이영재(2004), 예술인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사례 연구, <제주문화예술 정책 연구> (1).
목수정(2007), 문화민주화, 문화다양성, 지역분권, <문화예술> 327호.
박영정(2008),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문길(2008), 예술인 복지 지원제도 관련 해외사례 검토와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동향>, 가을호
강익희(2011), 문화예술인력의 복지현황과 개선과제, <KOCCA포커스>, 한국콘텐츠진흥원
김휘정(2011), 예술인 복지 지원의 쟁점과 입법 및 정책과제, 문화정책연구 2011.
이선엽(2012), 예술인 복지의 전망 : 경남 미술인이 기대하는 예술인 복지, 경남발전 126호.
문화체육관광부(2017), 새 정부 예술정책 토론회 1차 자료집.
- Le Guide des Intermittents du Spectacle(2007), Paris:La Scene.
Wyszomirski, M.J.(2003) The Creative Industries and Cultural Professions in the 21st Century, <Preceeding of the 5th Barnett Symposium>, The Ohio State University.

| 정책과제 2019-29 |

전남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 방안 연구

A study for improving welfare of Artist in Jeonnam

인 쇄 일 2019년 12월

발 행 일 2019년 12월

발 행 인 박 성 수

발 행 처 광주전남연구원 <http://www.gjeri.kr>

전라남도 나주시 우정로 56 토담리치타워 7, 8층(빛가람동)

TEL 061)931-9300 FAX 061)931-9393

인 쇄 처 (주)프리비

I S B N 979-11-90491-06-8 93300

-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검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사는 금합니다.